

# 인민의 꿈 꽃피나는 사회주의 내 조국이 제일입니다

인민의 꿈, 평범한 생활속에서 너무도 레사롭게 쓰이던 이 말이 오늘 공화국에서는 그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키며 만사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있습니다.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시대의 명곡 《조국찬가》의 이 구절과 더불어 인민의 꿈에 대한 깊은 생각을 불러주며 회한한 전편이 매일 매 시각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펼쳐지고있습니다.

누구나 행복감과 환희에 젖어 꿈이 현실로 되는 오늘을 말하고 더 아름다워질 태일을 그려보며 가슴이 벅차도록 꿈을 이야기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눈부신 현실을 인민의 꿈과 결부하여 찬미하는 시대상에 가슴젖을수록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위하시며 인민의 꿈을 활짝 꽃피우시기 위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하늘도 감복할 초강대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께서 오늘의 현실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저로 하여금 뜻깊은 광명정절을 맞으며 백두산철세위인들에 대한 감사의 정을 담아 붓을 들게 하였습니다.

인민의 꿈, 너무도 평범한 말이지만 여기에는 력사의 크나큰 울림이 있습니다.

장구한 인류사는 어찌보면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은 삼척동자와 같다고 순박하기 그지없는 인민의 꿈은 언제나 소박하였습니

다. 지주의 고역살이에 등뼈가 휘도록 가대기를 갈다가 지쳐 쓰러질 때 이 나라의 농민들이 대지를 파듯날로 적시며 꿈꾼것은 자기의 땅을 한탄 가저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

다. 봉건의 질곡에 얽매어 천대와 멸시속에 열두송치마자락을 뽀뽀로 적시며 우리 녀성들이 소원한것은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람대접을 받으며 사는것이었습니다.

인류의 꿈도 다름바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미국에서 진행된 《워싱턴행진》이라는데서 인권평화운동가인 한 목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사는 꿈이라고 격정을 터놓아 박수갈채를 모았다고 합니다.

흑인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하여 멸시받고 배척받는 그릇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수난자들의 목소리는 세월의 언덕넘어 끝없이 울렸지만 여전히 실현될수 없는 메아리로만 남아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워싱턴행진》 50년을 맞으며 지난해에 수많은 흑인들이 《꿈

을 이루자》는 구호아래 또다시 시위행진에 떨쳐나섰겠습니까.

사람들은 꿈을 이루려고 하늘에 빌어도 보았고 신의 《축복》을 부르며 인생길에 행운이 트이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인내천》을 종지로 하는 우리 천도교인들이 청수를 떠놓고 평생 수심정기하며 고대하는것도 한울님의 덕이 천하에 펼쳐져 중생들이 보살퍼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체사상탑앞의 3인공상앞에서 한 시간이 터친바와 같이 땅우에서 불과 몇m높이인 대돌우에 근로하는 인민이 오르기까지는 수천년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인민이 한울대접을 받는 세상은 동서에도 고금에도 없었으니 그래서 백성의 꿈은 신기루처럼 보이기만 하고 좀처럼 손에 찻수 없는 환상의 세계라고 알려졌습니

다. 너무도 소박한 인민의 꿈이 어이하여 이루어질수 없었던가.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투시하며 래일을 내다볼수록 더욱 세무에 깊숙이 새겨지는 철리는 인민의 꿈은 만백성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살피는 위인을 모실 때 꽃피난다는것입니다.

이 땅에서 토지개혁법이 발포되고 공장의 주인이 된 로동자들이 창조의 마치소리를 기운차게 울려가는 경이적인 화폭, 녀성들이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향유하며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서던 60여년전의 사변을 두고 당시 신문들은 인민들의 세기적인 속망이 풀렸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 세기적속망을 하늘이 풀어주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력사의 흐름속에서 절로 이루어진것입니다.

땅의 주인이 되어 밭고랑같은 주름살이 깊숙이 패인 얼굴에 난초처럼 웃음을 실어보던 농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던 장군님 주신 땅 에루하 데루하 《발갈이노래》가 흘러나오고 이 나라 녀성들의 새 력사를 그려를 때면 씩씩하게 뭉치자 장군님 두리에서는 《녀성의 노래》의 구절부터 먼저 새겨보게 되는것이 인민들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인민의 꿈은 인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보살펴주는 수령의 품속에서만 활짝 꽃피날수 있습니다.

예술영화 《조선의 별》의 한 장면이 심금을 울려줍니다. 강반석어머님께서 줄겨 부르시던 달노래를 차광수참모장에게 들려주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하신 이야기, 기껏해야 초가삼간 지어놓고 마음편하게 살아보자는것인데 우리 조선사람들이 이만한 소원도 풀지 못하고 살아야 하겠는가.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구절도 가슴을 파고듭니다.

인간세상의 막바지나 다름없는 심산오지에서 비록 금수같이 살지언정 왜놈들의 꼴을 안보시 마음편하다는 산전막로인의 서글픈 하소에서 나라잃

은 인민의 비참한 정상을 찢기는 가슴에 새겨안으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하신 말씀, 살길을 찾아온 이국땅에서까지 해빛을 보지 못하고 숨어살아야 하니 조선의 아들들의 죄가 큼니다. 그렇지 만 할아버지, 이제 해빛을 보면서 살게 될 날은 꼭 옵니다.

일꾼들이 이제는 내 나라의 푸른 하늘도 활짝 열어주시었는데 부디 멀고 험한 길을 건지 마시라고 말씀올리면 자신께서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어떻게 하나 가까운 앞날에 내 나라의 푸른 하늘아래 행복의 오목백파를 펼쳐놓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하자는것이라고 하시며 폭우가 쏟아지는 곳은날도, 불씨가 내려쪼이는 삼복의 계절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온 한해동안 현지지도길에 계신 장군님이시였습니다.

그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진정한 인간의 존엄을 빛내이는 력사의 거인으로 성장했고 사회주의 새세상에 맞이했으며 세금이 없고 무상치료, 무로의 무료교육이 실시되는 꿈같은 생활도 맛보며 만복을 누리셨습니

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어 인민의 꿈과 리상을 더 활짝 꽃피우시었습니다.

《보국안민》, 《지상천국》은 우리 천도교의 뜻이기 전에 인민의 꿈이었고 념원이었습니다.

외세의 침노가 그칠새없는 동란의 세월에 부대끼면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바랬건만 인민의 꿈은 어느 세월에도 이루어질수 없었습니다.

120년전 갑오년에 이 땅의 동덕들이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기치높이 창과 화승총을 들고 일어났다가 대포와 총을 휘두르는 일본군에 의해 공주의 우금치계곡을 피로 물들여야만 했던 참상은 오늘도 겨레의 가슴속에 아프게 새겨져있습니다.

그에서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인민의 꿈은 그 어떤 외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강국에 대한 념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민족의 세기적속망인 강국의 념원을 선군정치로 가슴후련히 풀어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십니다.

《광명성》 찬연한 이 이름으로 우리의 위성이 편이여 우주로 솟구쳐오르고 우리의 막강한 국력을 두고 세계가 떠들 때 우리 인민의 가슴에 그들 먹이 차넘친 감격과 희열, 그것은 누구도 감히 다칠수 없는 강대한 조국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세기를 두고 웅어리진 약소국의 치욕과 피할수 없는 운명의 속박과 같은 지정학적숙명에 종지부를 찍고 영원한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신 회세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때를 지어 덤벼들며 《3.3.3봉괴설》을 내돌리던 그 엄혹한 시기에 인민의 운명을 지키는 길은 선군에 있음을 더욱 절감시키고 비내리는 철령, 눈내리는 오성산을 비롯한 조국의 높고 험한 산발들을 넘고 또 넘으시며 씩없이 이어진 장군님의 선군령도에 받들려 내 조국

의 힘은 강대해졌고 맑고 푸른 하늘은 영원한 조선의 상징으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푸른 하늘아래 인민의 꿈이 더 활짝 꽃피나는 행복의 오목백파를 펼쳐주시었습니다.

일꾼들이 이제는 내 나라의 푸른 하늘도 활짝 열어주시었는데 부디 멀고 험한 길을 건지 마시라고 말씀올리면 자신께서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어떻게 하나 가까운 앞날에 내 나라의 푸른 하늘아래 행복의 오목백파를 펼쳐놓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하자는것이라고 하시며 폭우가 쏟아지는 곳은날도, 불씨가 내려쪼이는 삼복의 계절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온 한해동안 현지지도길에 계신 장군님이시였습니다.

그 나날 훌륭한 수령장과 호렐, 극장들, 회한한 철강상이풍경, 라조풍경이 앞을 다투며 생겨나고 조국땅 어디서나 변이 나는 회한한 현실이 그리도 호뭇하시어 지금 혁명적대고조의 진군속에서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 품고있던 리상과 포부가 하나하나 현실로 꽃피나고있다고 말씀하시던 장군님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을 격정에 설레이게 합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수령님 념원하신 그 리상, 장군님 꽃피우신 그 리상 아 내 조국땅에 현실로 펼쳐진다고 사회주의조국을 인민의 꿈이 꽃피나는 지상천국으로 바꾸어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하늘같은 은덕을 노래에 담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참으로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천도교에서 일컫는 《위위리》(사람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을 뜻함)을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하신 대성인이시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드시어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회주의 내 조국을 인민의 모든 꿈이 꽃피나는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워가고계십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돏경축 열병식에서 력사적인 첫 연설을 하실 때 세일을 더욱 감동케 한것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한없이 숭고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가슴뜨거운 말씀이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부풀게 하던 사회주의부귀영화가면 앞날의 일이 아닌 회한한 오늘의 현실로 펼쳐지고있습니다.

불과 수개월전만 해도 오늘의 벽찬 광경을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지난해 여름 저는 가족과 함께 룡라물놀이장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었습니다. 그 기쁨과 랑만의 여

운이 가지여지기도 전에 문수지구에는 그보다 몇배나 더 크고 세계적인 문수물놀이장이 솟아났습니

다.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수십개의 수조들과 각종 물미끄럼대들이 야외와 실내에 짝 들어차있는 환상같은 세계에서 황홀경의 절정을 맛보며 사람들은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진다는 《조국찬가》의 구절이 저절로 떠오른다고 누구나 기쁨과 감격에 겨워 말하고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창전저리, 은하과 학자거리와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들의 살림집이 련속 일떠서고 미림승마구락부가 회한한 모습을 드러냈습니

다. 지금 원수님 마련해주신 승마구락부에서는 행복의 말발굽소리가 높이 울리고 온 나라에 새로운 승마바람이 일고있습니다.

스키하면 겨울의 나라라고 일컬어는 북유럽나라들의 고산지대를 련상하군 하던 인민들이 마식령스키장에서 문명의 눈갈기를 날리며 기쁨의 탄성을 터뜨리고있습니다.

이 모든 꿈같은 현실들은 불과 1년도 안되는 사이에 이루어진것들입니다. 공화국은 날마다 변모되고 날마다 솟구지고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부귀영화가 어떤것인가를 온몸으로 체험하고있으며 오늘도 좋지만 끝없이 번영할 행복의 태일을 꿈꾸며 창조와 기적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민사랑의 뜻을 꽃피우시어 인민의 꿈이 백화로 만발하는 이란 황홀경을 펼쳐주시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꾸려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을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 불꽃핀는 건설작을 낫에도 찾으시고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찾고 또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습니다.

문수물놀이장이 완공되면 우리 인민들에게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꾸려주시려고 마음쓰신 아버지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것으로 된다고, 장군님께서 게설 때 건설하여 보여드렸더만런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그토록 만사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하는 말씀을 하시며 물놀이장을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최상급의 선물로 마련하시려 기술이신 원수님의 사랑은 수조의 타일 하나하나, 탈의실 거울, 자그마한 건발기에 이르기까지 숨배여있지 않는것이 없습니다. 그 로고속에 문수물놀이장이 훌륭히 꾸려지고 이곳을 리용할 주인공들을 대표하여 평범한 근로인민들이 준공페드를 끊게 하는 전설같은 화폭이 펼쳐졌을 때 장군님을 그리며, 원수님을 생각하며 누구나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림승마구락부가 전하는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입니까.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자옥이 어 려있는 인민군부대의 기마훈련장을 찾으시어 이곳을 현대적인 승마장으로 개건하면 장군님께서 남기신 고귀한 유산을 더 잘 꾸리고 더 공고히 하는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말을 탈리시며 주로의 상태까지 가늠해보시었으니 이런 하늘같은 인민사랑에 받들려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인민의 꿈을 싣고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있습니다.

정말 김정은시대는 황홀한 꿈의 시대입니다. 남너로소 할것없이 누구나 인생의 꿈, 미래의 꿈을 마음껏 설계하고 꿈을 꾸면 그것이 곧 현실로 되는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라고 감격에 넘쳐 칭송하며 받들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펴보면 많은 정치가들이 백성들앞에서 꿈을 공약하군 합니다. 《꿈이 있는 사회》, 《꿈과 재능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공약은 저 하늘에 비졌던 무지개처럼 한순간에 흩날려버려지고 마는것이 행성의 현실입니다.

인민의 꿈을 실현하자면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하고 탁월한 령도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겨레에게는 인민을 하늘같이 위하는 위대한 사랑의 태양이 계시고 령도의 거장이 계십니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바다의 물도 내륙으로 끌어들이고 태고의 수림도 한순간에 인민의 스키장으로 만드시는 천하제일의 정치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이 세상 그 어느 정치가도 지니지 못한 무한대한 사랑과 힘을 지니시고 조선을 미래의 상상봉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인민의 꿈이 활짝 꽃피나는 사회주의 내 조국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가는 인민의 락원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민족철퇴의 속망이고 겨레의 꿈인 조국통일의 새 아침도 반드시 밝아올것입니다.

올해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발표하도록 하시며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문을 열어나가도록 온 겨레를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계십니다.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뜨거운 동포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아버지로 높이 모시어 우리 인민만이 아닌 온 겨레가 만복의 꿈을 꾸며 세계가 우리로는 통일강국에서 세세년년 복락할 그날은 반드시 올것입니다. (필자는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임)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회의 진행

###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회의에서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겸 서기국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그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체 선거자들에게 보내주신 공개서한을 받아안고 강성국가건설에서 비약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회의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한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뿌리내린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열화같은 총성의 발현이며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원수님을 단결과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끝까지 따를 천만군민의 철석같은 의지의 표시로 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되는 대의원선거에 즈음하여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채택할때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회의에서는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회의에서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겸 서기국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그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선거자들에게 보내주신 공개서한을 받아안고 강성국가건설에서 비약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회의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겸 서기국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겸 서기국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겸 서기국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겸 서기국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겸 서기국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겸 서기국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겸 서기국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겸 서기국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겸 서기국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겸 서기국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겸 서기국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겸 서기국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겸 서기국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겸 서기국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겸 서기국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겸 서기국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겸 서기국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겸 서기국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겸 서기국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겸 서기국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겸 서기국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격폐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 자주통일의 국면을 열어가려는것은 오늘 우리 겨레의 강렬한 지향이며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요구로, 도도한 흐름으로 되고있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다.

조국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자!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거세한 통일애국의 열풍으로 전쟁의 검은 구름을 밀어내고 평화를 지키자.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가는데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호소문은 끝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모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힘있게 떨치자고 강조하였다.

본시기자